

13

부산 복싱 연맹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에 복싱이 처음 보급된 시기는 1950년대로 추정된다. 부산복싱연맹은 경상남도연맹으로 시작한 이후 1963년 분리 독립해 부산직할시아미추어복싱연맹으로 발족, 제1회 부산회장배신인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현재 하준양 회장을 필두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복싱은 1966년 제6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복싱 밴텀급에서 부산 출신인 손영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1970~1980년대 전국체육대회 및 대통령배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이후 국내 복싱계는 1980년대 후반 쇠락의 길을 걸었다. 국가경제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권투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든 데다 흥행도 되지 않아 전국의 유명 복싱체육관이 문을 닫았다. 부산도 예외일 수 없었다. 당시 부산에 성행하던 복싱체육관은 부침을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았다. 다행히 최근 몇 년새 복싱을 다이어트 수단이나 생활스포츠로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복싱체육관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소위 '왕따' 해결의 대안으로 자기 신체방어와 인성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복싱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추세에 있다. 현재 부산아미추어복싱연맹에는 중·고·대학부 40여 개 팀과 160여 명의 지도자 및 선수들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직 회장

하준양
리더스손해사정 대표이사
-2012
부산지식서비스
융합협회의 사무총장

역대 회장

제1대	문갑열	1976.01~1978.12
제2대	양철암	1979.01~1979.12
제3대	조희선	1980.01~1981.12
제4대	박현우	1982.01~1986.12
제5대	이종구	1987.01~1987.12
제6대	성기수	1988.01~1989.12
제7대	김성철	1990.01~1992.01
제8대	남진현	1992.02~2003.09
제9대	황용담	2003.12~
제10대	최일용	2008.12~2010.03
제11대	하준양	2010.03~현재

현직 회장 및 임원

연맹 직위	성명	소속
회장	하준양	리더스손해사정(주) 대표이사
	이장수	동아대학교 교직원
	이동명	자영업
부회장	장상기	동원환경 상무이사
	노왕기	국림피엔텍(주) 대표이사
	이건동	자영업
	정대호	사랑모아에셋(주) 대표이사
부회장 겸 전무이사	조정현	부산시체육회 감독
심판이사	권동락	자영업
훈련이사	이경두	영웅복싱클럽 관장

연맹 직위	성명	소속
시설이사	윤성훈	당감복싱클럽 관장
	이기수	금호고속 과장
	이한구	꽃과난원 대표
	박영주	대영메탈 대표
	이도민	자영업
이사	임대규	장정구체육관 관장
	장태규	개인택시
	최명철	자영업
	박영수	자영업
	배태호	스타복싱다이어트 관장
감사	김호찬	자영업
	김용술	대주회계법인 실장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71/196	-	19/64	16/49	10/16	26/67
2011	68/168	-	14/34	17/40	12/27	25/67
2012	69/165	-	18/38	17/48	16/41	18/38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3년)

연도	종합순위(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9(755)	3/0/0	7(293)	10(200)	9(262)
2011	13(673)	2/0/2	16(61)	14(61)	4(551)
2012	13(747)	1/0/4	10(214)	10(213)	12(335)

